

금어기 해제 앞두고 중국어선 대규모 침범 예고...전운 감도는 서해

부활한 해경 “불법조업 막자” 비장한 각오

목포해경 종합훈련 박차

다음달 16일부터 중국 ‘쌍끌이(타방) 어선’의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서해 치안을 맡고 있는 해양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 부활 후 첫 대형 임무를 앞두고 전술개발, 종합훈련, 불법외국어선 단속 경연대회를 펼치는 등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서해와 가까운 중국 산둥성 일대에만 모두 20만척의 등록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이중 올해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 선박 수는 1540척(유망 648·쌍타방 742·단타방 13·위망 82·우조 55)으로, 어획 할당량은 5만7750t이다.

문제는 허가된 선박에 섞여 들어오는 무등록 어선들이다. 중국 정부도 무등록 어선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심만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해 불법 조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타방 어선들이 조업 가능한 10월 16일 낮 12시부터 12월 31일 낮 12시까지의 기간 유망(8월 1일~12월 31일), 위망(9월 1일~12월 31일), 우조(재난기·10월 1일~12월 31일) 어선과 조업 허용시기가 겹치고, 지난 1일 중국측 휴어가 종료됨에 따라 중국배들이 대규모로 우리측 해역에 들어올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지난해 중국 어선 단속현황에서도 9월부터 불법조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조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남해안을 담당하는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목포해경이 7일 진행한 ‘하반기 해상종합훈련’에서 대원들이 외국어선 단속,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1~8월 기간 단속 건수는 18척인데 반해 9~12월은 96척에 이른다. 올해도 8월까지 단속건수는 13척에 불과하지만 해경은 9월부터 조기·갈치 등 어장이 형성되는 전남지역 서해에서 불법조업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맞춰 해경 본청과 서해해경, 목포해경 등은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방안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대형함정 1000t급 1010·1007호, 1500t급 1508·1509호, 3000t급 3009·3015호를 포함한 보유함정 20척이 참여한 하반기 해상 종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인명구조, 해양오염방제를 비롯한 외국어선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채증장비, 단속 장비, 무기 등의 점검도 모두 마무리했으며, 최근 대원들에게 고무탄, 스펀지탄 등 비상사용 탄환을 연속으로 쏠 수 있는 최신 40mm 6연발 유탄발사기도 지급했다.

또 동시에 10명까지 탑승가능한 10m급 고속단정 9척, 8m급 2척, 6.5m급 1척 등을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대형함정에 탑재했다.

특히 최대 18명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해상특수기동대를 편성하고 불법조업 어선에서 선원을 제압·나포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때 불법조업 규모에 따라 헬기와 대형함정 등도 지원된다.

지난 4~5일 해경이 인천에서 연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방안 등 여러 전술도 논의됐다. 해경은 검증단계를 거쳐 불법조업 단속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광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를 외국어선 불법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수부 등과 연계해 불법조업 규모에 따라 기동단대·기동전단을 운영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특히 해경이 부활한 이후 우리 어업인의 조업권 보호 등 ‘해양 주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지검, 5·18 헬기 사격 여부 수사 관련 “헬기 조종사도 직접 조사”

공식 조사 이뤄질 경우 전두환 소환 불가피할 듯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광주일보 9월 1일자 6면>한 검찰이 당시 헬기 조종사들의 소환조사 의지를 밝힘에 따라 진실 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헬기 사격의 ‘스모킹 건’인 헬기 조종사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7일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제기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사건(광주일보 4월 28일자 6면)과 관련, 쟁점인 헬기 사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일 5·18기념재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으며, 8일에는 서울 중앙지검을 방문해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이어 “수사에 필요하다면 당시 헬기 조종사들을 직접 조사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5·18기념재단으로부터 PDF 형식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지난 1995년 당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한 5·18관련 수사기록이 보관돼 있는 서울 중앙지검

을 방문해 박스 54개 분량의 관련 기록 일체를 입수한 뒤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지검은 앞서 서울 중앙지검 내 관련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입수해 이번 수사와 연관성이 있는 자료 목록 검토를 마쳤으며, 국방부에도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 중앙지검은 지난 1995년 4월부터 7월까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목적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를 했으며, 당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를 발표해 5·18 유족 등으로부터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양래 5·18기념 재단 상임이사는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조종사 소환 등 헬기 사격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동안 굳이 철저히 은폐하고 침묵을 해왔기 때문에 조종사·부조종사·승무원까지 전수조사해야 하며, 조종사 등을 소환한 한다면 증거(전일빌딩 탄환 자국)가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월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은 지난 4월 광주지검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법, 지만원 항소 기각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왜곡한 지만원씨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이 5월 단체 등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광주지법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11일 5·18 관련 단체 5곳과 북한군 특수부대원(이른바 광수)으로 지목된 박남선씨 등 9명이 지만원과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씨가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 북한군으로 지목된 당사자 3명에게는 1000만원, 당사자 5명과 단체 5곳에는 500만원, 당사자 1명에게는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씨와 뉴스타운은 지난달 22일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현재 5·18재단도 위자료 액수가 적다고 항소,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아내 성폭행 남편 징역 7년 선고



○...법원이 친정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리고 성폭행한 50대에 징역 7년형을 선고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에 따르면 A(77)씨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자녀식사 도중 신혼인 아내(50대)가 친정어머니 생일에 눈물을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며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A씨는 과거에도 동거했던 여성들의 옷

을 벗기고 폭행한 전과가 여러건 있었다는 것.

○...A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해 상관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 판사는 “A씨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병행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연합뉴스>

살기 힘든 자영업자들

식당 빛에...건물주와 갈등에 광주서 잇따라 숨진 채 발견

경기침체 등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업주들이 막대한 채무와 건물주와의 갈등 등으로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7일 광주경찰청장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광주시 광산구 한 식당에서 A(47)씨가 숨져 있는 것을 식당 종업원(여·55)이 발견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회집을 운영해 왔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서 6000여만원의 빚을 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5일 밤 11시 20분께 가게영업용 마치고 아내를

결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집 앞까지 데려다 준 뒤 “식당에서 정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깜빡했다”며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식 먼저 갑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같은 날 서구 치평동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건물의 전장누수 문제로 건물주와 마찰을 빚어온 B(여·49)씨가 남동생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해온 B씨는 누수가 심해지자, 한 달 전부터

식당운영을 중단하고 남동생집에서 생활해 왔다. B씨는 건물주와 전장 누수 여부를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최근 식당 누수문제로 힘들어 했으며, 숨지기 이를 전부터는 평소 마시지 않던 소주를 매일 밤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특히 B씨는 장기간 고향집을 잃어왔는데, 스트레스와 과도한 음주까지 겹치면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여중생 자매 성추행

학교전담경찰관 구속

자신이 딸은 학교의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학교전담경찰관(광주일보 9월 6일자 6면)이 구속됐다.

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여중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전남 모 경찰서 A 경위를 구속했다.

학교전담경찰관 A 경위는 올해 6월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 안이나 학교 밖에서 모 중학교 여중생 자매 2명의 신체 일부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A 경위를 긴급체포하고 직위 해제했다. <박진표기자 lucky@>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현성업종

조청가



토지 1497평
건물 180평

야외결혼식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지	일반물건
▶화순군 북면 서유리 서유마을인근 잡종지 토지 3473평 감정가 183,000,000 최저가 128,000,000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북구 효령동 효령노인복지타운입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95평 감정가 202,000,000 최저가 202,000,000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해남 북평면 이진리 바닷가인근 교육시설 토지 3606평 건물 226평 감정가 273,000,000 최저가 273,000,000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마북동 상무현신휴플러스아파트 입구 46.2평 매매가 3억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휴관리권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장성군 진원면 함림리 366 전 도로접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휴관리권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임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 2540평 5억 5천만원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